

대행 스님

오직 주처를 안으로, 내면에다 두라

지난 호에 이어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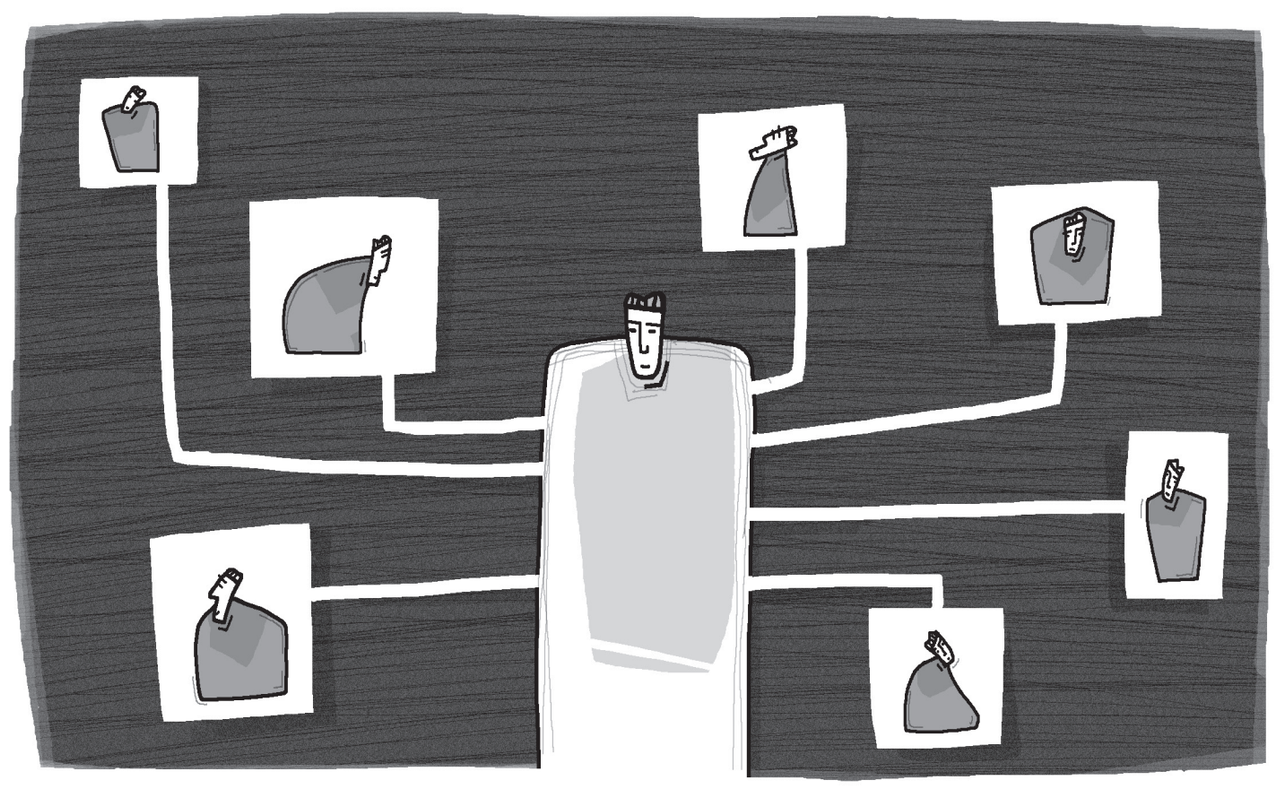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내가 안방에 있다 하더라도 내가 거기 있으니까 바로 자기 법신이 있는 것이요, 부처가 있는 것이요, 또 화신이 있는 것이지 도량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절(寺)만이 도량이고 가톨릭교나 기독교의 강당만이 강당이 아닙니다. 자기가 변소에 앉아 있으면 바로 자기가 거기에 있기 때문에 변소 또한 도량입니다.

이 세계, 삼천대천세계의 일체를 잘 요리해서 맛있게 먹을 수만 있다면 여러분은 으뜸가는 자유인이요 부처입니다. 바로 이 세상에서 유의 세계 무의 세계, 죽은 사람 산 사람, 죽은 영들 산 영들을 다 한꺼번에 건질 수 있는 여러분의 그 능력으로 인해서 구경경지에 이르러서 여러분이 바로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각을 이루고 말입니다.

"망상을 끊어라, 끊어라" 하는데 끊는 것이 아닙니다. 저 물 흘러가는 것을 가만히 보십시오. 그걸 아무리 끊은들 끊어지겠습니까? 망상이 일어나는 것도 바로 자유인이 되는, 바로 사람이 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겠죠? 만약에 망상이 없다면 사람 될 수 있는 그 과정이 어떻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목석일 것입니다. 그러니 망상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 망상은 망상이 아니라 바로 나를 성장시키는 길잡이라고 생각하십시오. 이렇게 편리한 부처님의 가르침을, 사대 성인의 가르침을 그렇게 헛되이 생각해서 우리 인간의 도리를 다 못 해서야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이 모두, 부처님을 믿는 사람도 형상만 보고 거기다가 나를 잘되게 해 달라고 빌고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기복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 가톨릭교나 기독교나 고상을 걸어 놓고 거기다가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하는 것이 틀렸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 형상이 나의 형상하고 둘이 아니요, 그 마음이 나하고 둘이 아니요, 그 생명이 나하고 둘이 아닌 까닭에 어디 가서 앉았든지 끊어짐이 없습니다. 믿어도 바로 믿고, 생각을 해도 바로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해도 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남을 못 믿고 남을 원망하고 만날 남의 탓으로만 돌리고 이렇게 해서야 어찌 우리가 종교인이라고 하며 어찌 우리가 이 세상의 만물의 영장이라고 하겠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자기 마음으로 자기를 항상 다스려 나가면서 남편한테나 자식한테나 또는 형제간에나 친구간에나 어떠한 일이 있어도, 어떠한 괴로움이 있더라도, 저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망했다 하더라도 내 탓으로 돌리세요. 만약에 내가 없다면 그 상대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 뜻을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내 탓입니다. 그러니 내가 아무리 속상하더라도 남의 탓을 하지 말고 자기 주처에, 한마음 주인공에 맡겨 놓고 부드럽게 말해 주고 부드럽게 행동해 준다면 아마 자식과 남편이 이탈되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싸움도 할 것이 없고요.

우리 이 몸뚱이가 살면 얼마나 살겠습니까? 뜬구름과 같이 모였다 흩어지고 흩어졌다 모이는 것이 바로 이 몸뚱이입니다. 이 몸속에 들어 있는 중생들의 집입니다. 집이고 종입니다. 불가에서는 시자라고 합니다. 자기 마음이 개별적인 마음이 아니라 몸속에 들어 있는 그 헤아릴 수 없는 마음들이 한데 합쳐서 한 그릇으로서 한마음으로서 돌아가게끔 할 수 있어야 이 종을 잘 부릴 수 있습니다. 한마음으로 이끌어 가고 또 다스릴 수 있는 마음이라야만이 자기 몸을 건강하게 하고 자기 가정을 잘 이끌어 줍니다. 이 주처의 주인공은 둘이 아닙니다. 전등은 이렇게 모두 따로 있지만 전력은 똑같듯이 둘이 아닙니다. 모습은 각각일지언정 어떻게 전력이 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듯이 동서가 둘이 아니요, 또는 아미타가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아촉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지장이 따로 있는 게 아니요 ,관세음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한마디 하고 그치죠. 이거 보세요.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사시면서 가정에서 아버지라는 이름을 갖고 계시죠. 또 어린애로 태어났을 때 지어 준 이름을 가지고 계시죠. 두 개네요. 남편이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사위라는 이름이 또 있습니다. 형이라는 이름이 또 있고 아우라는 이름이 또 있고…. 여러분, 어머니든 아버지든 다 그렇습니다. 이름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고 부처라면 이렇게 서서 자기 이름을 떡하니 붙여 놓고는 거기다 기도하는 걸 볼 때에 마음이 좋겠습니까? 네? 자기 이름이 그렇게 많아요. 그런데 쭈욱 붙여 놓고선 거기다 놓고 빌고, 거기다 놓고 '주여! 하나님이시여! 아버지시여! 부처님이시여!' 이렇게 빈다면 좋겠습니까? 그럼 그 본인이 볼 때에 어떻게 생각이 들겠습니까? '저런 멍청이들 같으니….' 아마 이럴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거기에서 또 한 가지 말하면, 우린 자동적입니다. "여보!" 하고 부르면서 들어오면 말과 행과 뜻이 똑같이 남편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면서 들어오니까, 금방 남편이 됐었는데 고만 아버지가 돼 버리죠. 어때요? 틀립니까? 아버지가 됐다가 금방 "얘, 아무개야! 이리로 좀 건너오너라." 이러면 금방 아들이 되는 거예요, 또. 그런데 바깥에서 "형님!" 하고 들어오니까 금방 형이 된 거죠. 이건 자동적으로 행과 말과 뜻이 그대로 그냥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컴퓨터보다 얼마나 더 빠릅니까. 어때요? 컴퓨터에다가 입력을 해서 꺼내 쓰는 것보다 얼마나 빠릅니까? 그래서 부처님께서 "너희들은 마음을 깨치고 마음의 병을 고쳐 주어라." 이렇게 하신 겁니다. 마음의 병만 고친다면 모든 육신의 병은 다 떨어질 것이니까요. 핵심을 떠나서 육신, 이론, 지식, 학식, 교양 이런 것으로만 해서는 안 됩니다. 핵심을 떠나지 않으면서 그걸 포함해야 되겠죠.

우리네 이름들이 많듯이 부처님의 마음도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마음으로 동방에는 아촉이라는 이름을 지어 놓으시고 서방에는 아미타를 해 놓으시고 사바세계에는 관세음을 해 놓으시고 지천국에는 지장을 해 놓으셨어요. 자기 마음으로 이름을 지어 놓은 겁니다. 왜, 여러분도 한 가정에서 살면서 이름이 그렇게 많지만 모두 동일하게 돌아가지 않습니까? "아무개!" 그러면 빨리 올 거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게 사람 사는 도리이기 때문에 방편상 그 이름이 없어서는 안 되니까 그렇게 했던 거죠. '미륵이다' 이러는 것은 사람이 죽었으면 잠시 잠깐 없어졌다가 또다시 이 세상에 출현이 되는 것을, 찰나에 돌아오는 것을 미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다 부처고 여러분이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법신이고 화신이에요. 그 이

☞ 20면으로 계속



삶은 苦고가 아니다

세상 모든 생명들에게
바치는 대행스님의
생활속 불법이야기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苦고가 아니다(개정판)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스님 법어집 '삶은 苦가 아니다' 오디오북 출시

대행스님의 법어집인 '삶은 고가 아니다'를 오디오북으로 제작하였습니다.
전문 성우의 목소리가 아니라 대행스님의 가르침을 따라 마음공부 하는
이들이 수개월간의 정성과 노력을 담아 완성한 이 오디오북을 통해
불교를 더욱 편안한 마음으로 접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 오디오북 소개 |

제1장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고 있는가
• 내가 누구인지 모른대서야 00:03:13
• 누구나 부처 될 자격이 있으니 00:33:47
• 통하는 길은 오직 마음뿐 00:51:17
• 마음의 안테나를 세워라 1:26:20

제2장 누구에게나 똑같이 부여된 능력
• 생명의 에너지와 주인공 01:37:30
• 자신의 뿌리를 굳게 믿고 01:54:07

제3장 다 놓고 얻는 도리
• 놓고 가는 생활선 02:11:58
• 고정관념부터 깨라 03:03:44
• 삶은 고가 아니다 03:36:59

제4장 서로 돕고 사는 세계
• 공생 공용의 이치 04:23:15
• 생활 속의 마음 도리 05:00:41

제5장 가르침의 바른 이해
• 마음 밖에는 부처가 없다 05:43:54
• 불법의 바른 이해 06:05:10
• 실참 수행 06:49:56

제6장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 고에서 벗어나는 길이 있으니 07:23:00

정가 ~~14,000~~원 → 특판가 12,600원 / 신국판 / 314쪽 (배송비 별도)

『삶은 고苦가 아니다』는 1996년 9월에 처음 발행되어 초판 22쇄라는 기록을 남기고 스테디셀러로 자리매김한 대행스님 법어집 입니다.
2015년의 3판 개정판에 이어 2022년 4월에 개정 제4판을 내놓으며 읽기에 좀 더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우고 잘못된 부분들을 수정하여 페이지 수를 추가하였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신한은행 100-036-429749 (예금주 : 현대불교신문사) ※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